

“복 받고 싶으면 마음 속까지 복받을 일 해라”

불교TV 이사장 성우 스님, 다섯 번째 주제법문 ‘부처님 가르침에 담긴 진정한 행복’

“마음의 속된 번뇌, 성질, 어리석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받게 만드는 것이다”

4월 29일 봉은사 법당무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 뒤 다시 이웃에 나눠 모든 집에 등불을 밝히는 ‘무진등(無盡燈)’이 켜졌다.

성우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마음을 받게 만들므로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구성원의 완전한 행복, ‘만인의 행복’을 위해 불교는 어떤 가르침을 줄까. 육바라밀 수행에 대한 스님의 법문에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불교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세생생 원을 세웠습니다. 일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엘빈 토플러는 현대 사회를 시간과의 충돌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내일에 선행되어야 하는 혁명적인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50년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세계사에서 드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고 서로 존경하고 믿고 또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기존의 가족 질서가 무너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대간의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속도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대안은 부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참된 진리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의 지식인들은 불교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와 자원이 있는데 사색을 통한 지혜에서 그 에너지가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얘기 할 것입니다.

토인비도 20세기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불교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라 했습니다.

인도 네루 수상도 1943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하루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면 세계 역사가 호전 될 것이라며 명상을 생활화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21세기 IT계의 최첨단에 서 있는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스티브 잡스는 임인돼 정제성에 회의를 느끼던 어린 시절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이

후 결혼식에 인도 스님을 주례자로 모실 정도였습니다. 잡스는 명상을 통해 본질을 직시하고 필요한 것만 담고 불필요한 것은 배제하는 절제의 미학을 깨닫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철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상과 수행에서 창조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삶을 어두운 삶에서 밝은 삶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상웃파니까야》에는 나병을 앓고 있는 숫빠의 경이 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숫빠라는 사람이 거지로 이곳 저 곳 유랑하며 얻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부처님 법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숫빠는 밥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수행하는 스님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가 궁금해 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숫빠는 나병을 앓아 멀리 떨어져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부처님은 ‘인연이 있구나’ 보시고 대중 법문을 읽고 숫빠에게 보시의 공덕과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받는 인과 등 여러 가지 법문을 해줬습니다. 숫빠는 법문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맑아져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숫빠는 ‘환희 음악’, 즉 락 뜻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나병 환자인 숫빠가 ‘어떤 공덕으로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숫빠는 과거 전생에 부유한 장자집안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탁발 모습을 보고 ‘이 거지야, 이 문둥야’ 하며 짐을 뺐었고 그 과보로 금생에 거지가 되고 나병환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고 믿으면 불국토 마음씀씀이에 따라 부처와 중생 나눠어

한생각 나고 내는 것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숫빠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복을 느낀 것은 과거 지은 공덕을 떠나 한생각 한 마음을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이 움직이면 업이되고 공덕이 됩니다. 경봉 스님은 ‘한 생각, 한 마음이 적게는 마음자리 맑히고 크게는 우주 만물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 생각이 일었을때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는 육바라밀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육바라밀은 보시가 시작입니다. 보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한량없는 다짐생으로 무상업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나의 업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업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육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시의 시작이고 이어 나와 가까운 이웃에게 부처님 진리를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는 밝은 마음을 쓰는 것이 제일 큰 보시입니다. 밝은 마음 자체가 밝은 지혜로 따뜻한 마음 자체가 보시입니다. 이 마음 씀은 아무리 써도 남음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못사는 인생 밝은 마음 한껏 쓰는 것이 우리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계율을 수지하고 지킬 것인가.

석주 스님은 이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들 마음이 없는데 내려놓을 마음이 어디있는가. 빈 손도 내려 놓아라.’

빈 손도 내려 놓는 것이 참된 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하심입니다. 하심하면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심하며 자신의 삶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심에 참다운 불자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번째가 인욕입니다. 인욕은 한발 물러서는데서 시작합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한발 물러서보십시오. 이 바쁘게 변화하는 생활에서 어떻게 한발 물러서라는 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발 물러섬으로서 그 공간만큼 나의 행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났을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등 모든 감정이 일어났을때 자제하기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그 감정의 결과는 인과로 이어집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 인과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정진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진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행복의 황금열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중생심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놓아야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는 일. 마음 바뀌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과거 업으로 현재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선정입니다. 저는 선정은 바로 발심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일은 반야 지혜를 밝히는 일입니다. 욕망에 그달려가는 마음은 우리 업만 쌓을 뿐입니다. 그 속에 기쁨과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업만 쌓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인가.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스러워 하는 그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와 보살은 자신의 업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씀에 따라 위상이 틀려집니다. 보살의 마음을 쓰면 보살입니다.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쓰면 짐승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정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짓고 마음 속 행동까지 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행복을 누릴 사람은 마음을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성우 스님은?

성우 스님은 1963년 대구 파계사에서 출가해 1966년 불교전문강원, 1968년 해인총림을 원으로 졸업했다.

1978년 중앙승가학원 설립 초대원장으로 1979년 대한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불교TV 무상사 회주, 2000년부터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불기 2555년(2011) 신묘년 부처님 오신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한불교 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 허 녹 원
주 지 정 강 성 웅

대 중 일 동
www.jikjisa.or.kr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중무소 : 054)436-6174, 6013 FAX : 054)436-3174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